류현진, 30일 켈리와 격돌
첫 KBO리그 출신 매치업

사상 첫 KBO리그 출신 투수들의 선발 맞대결이 펼쳐진다. 주인공은 '괴물' 류현진(32·LA 다저스)과 'SK 출신' 메릴 켈리(31·애리조나)다.

류현진은 30일(한국시간) 애리조나 원정 경기에 선발등판 예정이다. 'MLB닷컴'은 애리조나 선발투수로 켈리를 예고했다. 이들은 12일 경기에서 맞대결 가능성이 높았지만, 애리조나가 켈리에게 휴식을 주며 등판 일정을 조정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당시 류현진은 마이크 리크와 선발 매치업을 펼쳐 7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12승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두 경기 합쳐 10이닝 11실점으로 내리 패전을 떠안았다. 1.45까지 떨어졌던 평균자책점은 어느덧 2.00까지 올랐다. 류현진으로서는 애리조나전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상대 선발 켈리는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투수다. 2015년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그는 지난해까지 4시즌간 119경기에 등판해 48승32패, 평균자책점 3.86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애리조나에 영입돼 5선발을 보장받았고 26경기에 등판해 9승13패, 평균자책점 4.86으로 무난한 활약 중이다. KBO리그를 거쳐 간 투수들이 선발 맞대결을 펼친 사례는 전무하다. 류현진과 켈리의 대결이 별다른 변수 없이 성사된다면 역대 최초가 된다. 물론 류현진으로서는 부진을 씻기 위한 호투에만 초점을 맞추겠지만, 국내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제29회 WBSC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30일 기장서 개막

한국야구 미래들 총출동… "V6 부탁해"



세계 야구의 미래가 한 자리에! WBSC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30일부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다. 2012년(서울)에 이어 7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린다. 16일 기장군청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성열 감독(앞줄 왼쪽에서 4번째)과 선수단이 오규석 기장군수(앞줄 맨 왼쪽), 이승엽 KBO 홍보대사(앞줄 왼쪽에서 2번째)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기장군

2012년 이어 7년만에 한국 개최
일본·미국·대만 등 12개국 출전
역대 우승 5회…각 팀 주축 성장
이성열 감독 "반드시 우승할 것"

세계를 호령할 야구 스타들의 산실인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다. 2012년 서울 대회에 이어 7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차세대 스타로 기대를 모으는 젊은 피의 경연장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 대만, 중국, 캐나다, 파나마, 스페인, 니카라과,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네덜란드 등 12개국에서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한국은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예선라운드에서 호주와 네덜란드, 캐나다, 니카라과, 중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일본과 미국, 대만, 파나마, 남아공, 스페인이 B조에 속했다.

●한국, 6번째 우승컵 안을까

한국은 1981년 초대 대회(미국 뉴어크)를 비롯해 1994년(캐나다 브랜든), 2000년(캐나다 에드먼턴), 2006년(쿠바 상티스피리투스), 2008년(캐나다 에드먼턴) 등 이 대회에서 총 5차례 우승컵을 안았다. 2017년 캐나다 썬더베이 대회에선 결승에 올랐지만,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0-8 패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년 전에 이어 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성열 감독(유신고)은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앞선 5번의 우승, 누가 함께 했나

우승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야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한다. 그 면면도 화려하다. 1981년에는 선동열 전 한국야구대표팀 감독과 조계현(KIA 타이거즈 단장), 1994년에는 이승엽(KBO 홍보대사), 김선우(MBC 스포츠+ 해설위원)가 주축으로 팀을 이끌었다. 2000년 대회 우승의 주역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김태균, 정근우(이상 한화 이글스)는 지금도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2006년에는 현재 KBO리그의 대표 좌완 듀오로 불리는 김광현(SK 와이번스)과 양현종(KIA)의 퍼포먼스가 돋보였고, 2008년 에드먼턴대회 우승 주역인 허경민, 박건우, 정수빈(이상 두산 베어스)을 비롯해 김상수(삼성 라이온즈), 오지환(LG 트윈스), 안치홍(KIA) 등은 각 구단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또 다른 볼거리는 한일전

한국과 일본 야구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피의 맞대결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양 팀 모두 슈퍼라운드에 진출하면 최소 한 차례는 맞대결을 벌인다. 7년 전 서울 대회에서 양국 대표로 나섰던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다는 점도 이번 대회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2012년 서울 대회 때 대표팀 일원이었던 장현식(NC)과 한승택(KIA) 등은 팀의 주축으로 뛰고 있다. 일본 대표였던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는 일본프로야구(NPB)를 평정한 뒤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고, 포수였던 모리 도모야(세이부 라이온즈), 다무라 다쓰히로(지바 롯데 마린스)는 NPB 정상급 안방마님으로 성장했다.

이번 대회 일본대표팀 선수 중에선 최고구속 163km의 강속구를 지닌 사사키 로키(일본 이와테현 오후나토고)가 주목받고 있는데, 오른손 중지에 물집이 잡힌 탓에 예선라운드 등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사사키는 예선라운드(30일~9월 3일)보다 9월 5일부터 진행되는 슈퍼라운드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이주엽·박주홍 등 예비 프로선수 '쇼케이스'

장정석 감독 아들 장재영도 주목

제29회 기장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지닌 매력은 26일 열린 2020 KBO 신인드래프트(1차지명 포함)에서 KBO리그 10개 구단의 지명을 받은 예비 프로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구팬들에게는 대회 결과만큼이나 흥미로운 요소다.

2020시즌 1차 지명을 받은 선수 10명 가운데 성남고 이주엽(두산 베어스), 야탑고 오원석(SK 와이번스), 휘문고 이민호(LG 트윈스), 유신고 소형준(KT 위즈), 경남고 최준용(롯데 자이언츠·이상 투수), 장충고 박주홍(키움 히어로즈·외야수) 등 6명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정보고 남지민(한화 이글스), 유신고 허윤동(삼성 라이온즈·이상 투수), 유신고 강현우(KT), 대구고 현원회(SK·이상 포수), 라온고 김지찬(삼성), 경남고 이주형(LG), 야탑고 박민(KIA 타이거즈), 대구고 신준우(키움·이상 내야수), 경남고 이정우(LG), 광주제일고 박시원(NC 다이노스·이상 외야수) 등 2차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은 이들도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뽐낸다. 키움 장정석 감독의 아들인 덕수고 2학년 장재영도 주목 받고 있다.

A조에 속한 한국은 대회 첫날인 30일 오후 7시 네덜란드와 맞붙은 뒤 31일 호주(오후 6시), 9월 1일 캐나다(낮 12시), 9월 2일 니카라과(오후 6시), 9월 3일 중국(낮 12시)과 경기를 치른다. 5경기 모두 메인 구장에서 열리며 각조 1~3위 팀은 슈퍼라운드에 진출해 예선라운드에서 맞붙지 않았던 B조의 3개 팀과 격돌한다. 대망의 한일전도 이때 성사될 전망이다. 슈퍼라운드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1~2위 팀이 8일 오후 6시 결승전, 3~4위 팀은 같은 날 낮 12시 3위를 놓고 맞붙는다. 예선라운드 각조 4~6위 팀은 슈퍼라운드 일정에 맞춰 순위결정전(7~12위)을 치른다. 슈퍼라운드 일정은 예선라운드가 끝난 뒤 결정되며 야구팬들은 이번 대회 전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강산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학습방법 및 노하우 공유

내게 맞는 9급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은?

9급공무원 공무원 수험생은 직렬에 따라 준비하는 과목이 다르다. 하지만 학습해야 하는 범위는 방대하기 때문에 9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하다. 수험생들은 각 과목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학원에 등록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다. 두 가지를 병행해 학습하는 수험생도 상당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은 강의를 듣고 자신의 방법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9급공무원 수험생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른 수험생들의 학습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실제로 공무원 수험생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는 학습 방법 혹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9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과목별 학습방법과 수험생활 노하우, 면접 준비 등 9급공무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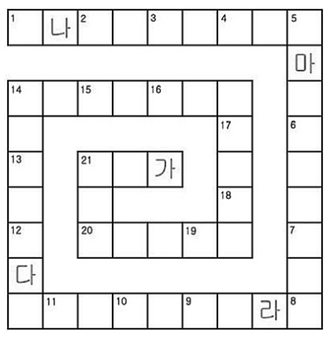


교육행정직 9급공무원에 합격한 감주연 씨는 "영어 과목은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암기했으며, 기본서와 요약집을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기출문제집도 여러번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라고 했다.

일반행정직 9급공무원에 합격한 이도형 씨는 "공무원 수험의 핵심은 정해진 분량에서의 무한 회독인 것 같습니다"라며 "한 권의 기본서로 수십 번 회독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에듀윌을 통해 9급공무원에 합격한 수험생의 합격 수기는 에듀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낱말문제



01.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사ㅇㅇ' 02.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히 피하기 위해 마련한 출입구. 03.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물건 등을 구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 04.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 05. 두 사람 이상을 꼭 누구누구라고 지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 06.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 07. 돌이 많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 08. 여러 제자 가운데 배움이 가장 뛰어난 제자. 09. 차 주인이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는 일. 10. 가게에 내다 팔려고 날림으로 만든 물건. 'ㅇ내ㅇ' 11.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인들의 사회. 12. 고려 말 정몽주가 훗날 태종이 된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 답하여 지은 시조. 13.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14.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다는 맹자의 설. 15.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16. 스키나 등산 따위에서 'Z' 자형으로 된 길. 17.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18.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 19. 마음과 정신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20. 편히 쉬는 곳. 21.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나,다,라,마** 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